

굿픽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1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토다

- 시편 29장 11절 말씀

《 안 내 말 씀 》

2019년도 요양시설 수가(요양비) 인상에 따른 입소계약서 재작성 요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요양시설 수가가 6.08% 추가 인상되며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확정에 따른 **2019년도 입소계약서 재작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10일**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방문하셔서 계약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1일 기준			31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018년 수가	65,190	60,490	55,780	2,020,890	1,875,190	1,729,180
2019년 수가	69,150	64,170	59,170	2,143,650	1,989,270	1,834,270
인상 수가	3,960	3,680	3,390	122,760	114,080	105,090

본인부담금 입금 안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카드보다는 **계좌이체**로 보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금자명에 어르신성함**으로 기입하여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철수(이영희어르신))

생활실 개인물품 관리 협조요청

어르신 개인물품을 과도하게 생활실에 보관하고 계신 경우 물품 훼손, 분실 등의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소량의 물품 위주로 보관하시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께서 개인물품을 만지거나 정리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17일 오후 3시 예정)

1월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1월 6,21일 일,월요일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14:00~16:00 / 프로그램실
1월 17일 목요일	1월 어르신 생신잔치	14:30~15:30 / 1층 사랑홀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총무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담당자	박미옥 팀장	이재석 팀장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번호	934-5750	934-5703	934-5705	934-5730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진행된 행사	
12월 8, 13일 <하반기 간담회>	12월 22일 <“The Flat” 문화공연>



8일과 13일 2차례로 나눠, 어르신을 더욱 더 잘 모시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보호자 및 어르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 보호자님, 기관이 협조하여 서로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멋진 연주와 따뜻한 음성으로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The Flat” 공연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복지센터에 계시는 어르신과 환우님을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화려한 악기연주와 합창을 감상하신 어르신께서는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며 더 플랫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 마음

-이해인-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일 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곰게 설빔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